



부안수협, 위도 인근에 우럭종자 43만1342미 방류

부안수협(조합장 송광복)은 2일 부안군 관내 연안에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조피볼락(우럭) 지원 조성을 위해 계약된 조피볼락종자 40만8,645미와 추가로 2만2,697미 총 43만1,342미를 부안군 위도 인근 연안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에는 김성동 약 33만미가 우선 방류된 바 있다. (주)한국해상풍력에서 2025년 사업비 2억4,200만원을 지원해 이번 조피볼락을 남은 예상 1억2,100만원 규모로 실시되어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안군청, 부안수협, (주)한국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참여했다.

송광복 조합장은 “현재 어장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지역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산 종자 방류를 비롯한 바다 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등,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전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29일 순창 관내 농협 조합장, 순창농협 고향부모임 회원 등과 군지부 주차장 회관을 활용해 조성한 ‘텃밭 정원’에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 운동’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텃밭에서 수박, 참외, 토마토 등을 수확하고 이를테운 꽂들도 감상하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농협이 정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신종철 군지부장,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 동계농협 양준섭 조합장, 구립농협 김순용 조합장, 서순창 농협 설득환 조합장, 순창농협 고향부모임 회원 10명, 군지부 직원 등이 참석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종철 지부장은 “군지부는 주차장에 농업 가치와 먹거리 중요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 정원(채소화분)을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정원을 전파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농심천심 운동의 미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내 농축협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농심천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비전대 등, 진안군 청소년에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달 30일 진안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3개 대학 공동 지역사회 재능나눔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주비전대학교가 주관하고 전주기전대학, 군장 대학교가 함께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은 체험형 실습교육과 진로교육으로 구성됐다. 실습 과정에서는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제작 △이차전지 제조설비 운영 실습 △VR 체험교실을 실시했으며, 진로교육 과정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전망 특강 △대학별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을 비롯한 참여 대학의 이차전지 관련 전공 교수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배터리성능평가기’ 자격증을 보유한 사업단 전문 인력이 보조자로 나서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 자주 접하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제작해보는 뜻깊은 경험이다”며 “VR 체험까지 더해져 교육이란 기다렸다는 듯이 재미있는 모험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함께미(米)소(笑)’ 기부금 전달

신성건설, 지역사회 독거노인 지원 나눔 운동 동참

(주)신성건설(이용호 대표이사)이 지역사회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주)신성건설은 2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 이강영 전무이사, 최재훈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께미(米)소(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주)신성건설 임직원들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은 현금 5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 지역 7개 노인복지관에서 모금된 기부금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구제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전주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함께미(米)소(笑)’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소비쿠폰을 활용해 개인이 받은 민생소비쿠폰의 10%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시는 현재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로 확대해 1억 원의 모금액을 모집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약 1달 만에 2600여만 원의 후원 물품



과 후원금이 모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주)신성건설 대표이사는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신성건설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보여주신 (주)신성건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기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성 기자



진안농협,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 성공적 마무리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은 최근, 병해충(벼·콩) 드론 공동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는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진안군과 협력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써, 7월 23일(1차)을 시작으로 총 4회(벼 3회, 콩 1회)를 실시하였고, 진안농협 720여명의 조합원이 560ha(벼 435ha, 콩 125ha)를 신청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문종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올해 드론 공동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진안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의 결에 서서 농업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교사노조, 강경숙 의원에 감사패 전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익산에서 발생한 여교사 대상 성기 사진 전송 및 성희롱 메시지 사건에 적극 대응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익산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도통통, 돌봄 필요 대상자들에 양산 전달



남원시 도통통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근 독거어르신 장애인, 고령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71세 대상자에게 ‘양산’을 전달하며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일수 증가로 운열질환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되어 폭염에 대비해 양산을 배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운열질환, 냉방기 사용여부, 폭염대비 행동요령 인내, 무더위쉼터 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헤드라는 집중 살피 돌봄행동을 펼치고 있다. 한 어르신은 “올여름은 밖을 나가면 햇빛이 무서웠는데 폭염 대비 지원품을 쟁겨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안전교육

남원시 죽항동(동장 임점숙)은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남원시 10월 3대 가을 축제 흥보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것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교통안전, 근골격 질환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특히 최근 찾아진 기상 이변과 고령자 안전사고 증가에 대비해 응급상황 대체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남원시 3대 가을 축제(국제드로제전, 흥부제, 국가유산이랑)를 흥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후원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본점 8층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폭염 일수 증가 및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와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학수 부회장, 이은영 사무처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후,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가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데 후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나눔은 지역은행으로서 수익의 일부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미중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 “공존동생(共存同生)의 관점에서 우리사회 도움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들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나눔은 전북은행으로서 수익의 일부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미중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후,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가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데 후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나눔은 지역은행으로서 수익의 일부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미중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립기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립기연합회(회장 이태훈)가 2일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전달된 성금은 공동생활가정인 코비그룹홈과 소망그룹홈에 지원돼 이동들이 인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코비와 소망그룹홈은 이동들이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은 돌봄을 받는 보금자리로, 이번 후원을 통해 지역내 이동복지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회장은 “딸기는 정성과 사랑이 모여야 달콤한 열매를 맺듯, 나눔도 함께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금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은사랑봉사단, 완주 생강골 장애인작업장에 후원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생강골 장애인보호작업장 후원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심사일반 장애인봉사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날 전달식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생강골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13명이 이전 간식, 제품소포장 등 생산 활동과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 및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성근 기자